

제106호(2015. 6. 30.)

# 한·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1. 한·EU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교역 동향 .....	1
2. 주요 품목별 수입 변화 및 수입가격 분석 .....	6
3. 시사점 .....	16

감 수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02-3299-4236	hskim@krei.re.kr
내용 문의	지성태 부연구위원	02-3299-4304	dongsimjst@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2-3299-4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http://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 약

- 한·EU FTA 이행 4년차 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 규모는 3년차보다 확대되었으며, FTA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도 높아짐
  - 이행 4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3년차 대비 8.9% 증가한 36.8억 달러이며, 대(對)EU 수출액은 15.7% 증가한 3.5억 달러
  - 2014년 EU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2.9%로 전년 대비 9.1%p 상승
  - 대(對)EU 수출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69.5%로 전년 대비 5.7%p 상승
  
- 이행 4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은 국내외 수급여건 변화 및 수입 전환효과 등에 좌우되는 경향이 나타남
  -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 PED, FMD 발생 여파에 따른 국내산 공급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행 3년차 대비 58.0% 증가
  - EU산 유제품 수입량은 FTA TRQ 확대, 주요 수출국의 증산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 및 국내 수요 증가로 3년차 대비 25.9% 증가
  - EU산 곡물 수입량은 미국 등으로의 수입선 전환으로 3년차 대비 33.9% 감소
  - EU산 주류(맥주) 수입량은 국내 수요 증가로 3년차 대비 20.2% 증가
  
- 관세 하락폭 확대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효과가 커지면서 그 파급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전망
  - 이행 4년차 관세 하락에 따른 EU산 돼지고기, 유제품, 곡물(옥수수, 보리, 밀), 주류의 수입가격 인하효과는 각각 7~13%, 8~64%, 4~35%, 11~17%인 것으로 추정
  
- 한·EU FTA 이행에 따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보완대책을 내실화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하여 농축산업을 발전시킬 필요
  - 한·EU FTA 이행으로 국내 축산업(양돈, 낙농)의 위축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에서, 축산업 관련 국내보완대책을 보다 내실화하는 동시에 상시화되어가는 가축질병의 예방 및 대응책 마련 시급
  - EU산을 포함한 수입농식품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품종과 국산 원료 가공식품 개발·보급을 통한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 필요



## 1. 한·EU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교역 동향<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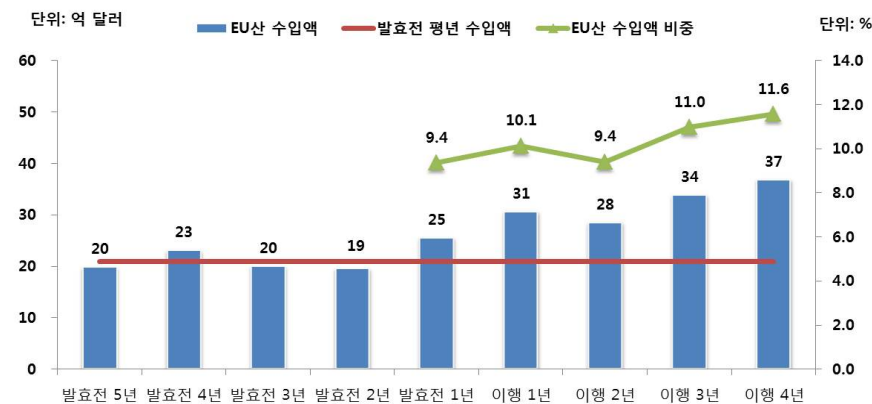
### 1.1. EU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

□ 한·EU FTA 이행 4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36.8억 달러로 3년차 대비 8.9% 증가

○ 농축산물 총수입액 중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1.6%로 이행 3년차 대비 소폭(0.6%p) 상승

– EU산 농축산물 수입액: 20.9억 달러(발효 전 평년) → 33.8(3년차) → 36.8(4년차)

그림 1. EU산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과일·채소, 가공식품과 축산물 수입액은 이행 3년차 대비 증가했으나, 곡물과 임산물은 감소

○ 과일·채소 수입액은 기타견과류조제품, 과일가루, 주스류 등의 수입 증가로 이행 3년차 대비 12.8% 증가

– 특히, 딸기주스(584.8%), 오렌지주스(129.9%), 신선오렌지(69.9%), 포도주스(81.1%), 채소주스(43.7%) 등 주스류가 크게 증가

1) 본장의 농축산물(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교역통계는 2,255개 HS코드를 대상으로 각 연도 7월부터 익년 6월까지의 자료를 집계하였으며, 이행 4년차의 경우 2015년 6월분 통계는 과거 3개년 동월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출함.

“ 한·EU FTA 이행 4년차, EU산 농산물 수입액은 3년차 대비 8.9% 증가 ”

가공식품과 축산물  
수입액 3년차 대비  
각각 7.6%와 32.1%  
증가

- 가공식품 수입액은 과자류, 코코아류, 식물성유지, 주류 등의 수입 증가로 이행 3년차 대비 7.6% 증가
  -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캔디(84.2%), 빵(115.0%), 올리브유(21.5%), 초콜릿(16.0%), 위스키(5.8%) 등임
- 축산물(유제품 포함) 수입액은 국내산 공급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행 3년차 대비 32.1% 증가
  -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돼지고기(61.3%), 치즈(63.7%), 조제분유(42.5%) 등임
- 곡물 수입액은 미국산 수입 증가에 따른 수입 전환효과 등으로 이행 3년차 대비 31.9% 감소
  - 주요 수입 감소 품목은 밀(△45.1%), 옥수수(△37.0%), 조(△95.6%) 등임
  -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 267.6만 톤(13.7.~14.6.) → 437.7(14.7.~15.5.)

표 1. EU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1.7.~12.6.)	2년차 (12.7.~13.6.)	3년차 (13.7.~14.6.) (B)	4년차 (14.7.~15.6.) (C)	발효 전 대비 (C/A)	3년차 대비 (C/B)
전 체	2,087	3,054	2,843	3,375	3,676	76.2	8.9
농산물	1,106	1,471	1,619	1,870	1,839	66.2	-1.7
곡물	83	192	289	450	306	268.4	-31.9
과일·채소	58	71	87	88	99	71.1	12.8
가공식품	957	1,208	1,243	1,332	1,433	49.7	7.6
임산물	289	332	353	442	434	50.4	-1.9
축산물	732	1,251	871	1,063	1,404	91.7	32.1

주 1) 발효 전 평년 값은 발효 전 5개년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뺀 3개년 평균값.  
 2) 각 부류별로 발효 전 평년 값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평년의 부류별 합계와 전체 합계가 차이가 있음.  
 3)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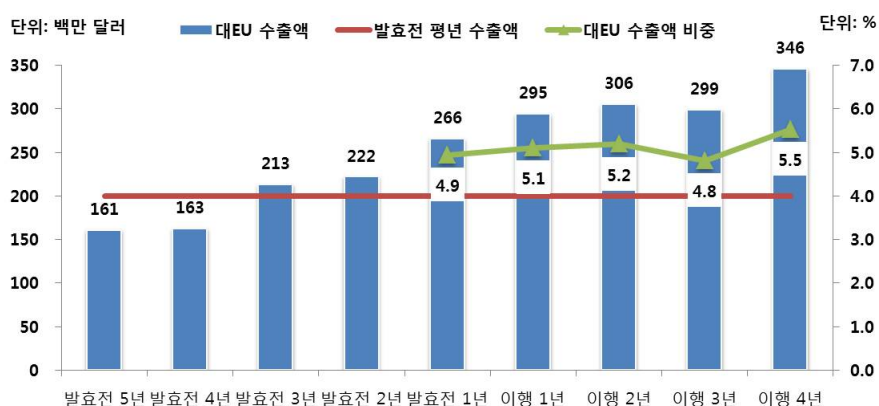
## 1.2. 대(對)EU 농축산물 수출 동향

□ 한·EU FTA 이행 4년차 대(對)EU 농축산물 수출액은 3.5억 달러로 3년차 대비 15.7% 증가

○ 농축산물 총수출액 중 대(對)EU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이행 3년차 대비 소폭(0.7%p) 상승

– 대(對)EU 농축산물 수출액: 2.0억 달러(발효 전 평년) → 3.0(3년차) → 3.5(4년차)

그림 2. 대(對)EU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한·EU FTA 이행 4년차, 대EU 농산물 수출액은 3년차 대비 15.7% 증가 ”

□ 부류별로 살펴보면, 가공식품, 임산물과 축산물 수출액은 이행 3년차 대비 증가했으나, 곡물과 과일·채소는 감소

○ 이행 4년차 EU로의 가공식품과 축산물 수출액 규모는 3년차 대비 각각 16.8%와 42.3% 증가

– 가공식품의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커피조제품(33.3배), 혼합조제식료품(11.0%), 기타음료(16.7%), 라면(17.3%) 등임

– 축산물의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젤라틴(58.2%), 가죽(53.7%) 등임

○ 과일·채소 수출액 규모는 이행 3년차 대비 5.5% 감소

–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기타식물성액즙(△79.2%), 기타식물성점질물(△17.8%), 단일과실조제품(△28.6%) 등임

표 2. 대(對)EU 농축산물 부류별 수출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1.7.~12.6.)	2년차 (12.7.~13.6.)	3년차 (13.7.~14.6.) (B)	4년차 (14.7.~15.6.) (C)	발효 전 대비 (C/A)	3년차 대비 (C/B)
전체	200	295	306	299	346	73.6	15.7
농산물	182	272	281	277	318	74.8	14.7
곡물	1	1	1	1	1	10.4	-2.0
과일·채소	16	18	22	25	24	49.3	-5.5
가공식품	165	253	258	251	293	77.3	16.8
임산물	7	11	10	9	10	50.7	7.3
축산물	12	12	14	13	19	60.5	42.3

주 1) 발효 전 평년 값은 발효 전 5개년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뺀 3개년 평균값.

2) 각 부류별로 발효 전 평년 값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평년의 부류별 합계와 전체 합계가 차이가 있음.

3)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일,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가공식품과 축산물  
수출액 3년차 대비  
각각 16.8%와  
42.3% 증가

### 1.3. 농축산물 한·EU FTA 특혜관세 활용률

#### □ 2014년 EU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9.1%p 상승

- 2014년 EU로부터 수입한 농축산물 중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31.4억 달러이며, 그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 수입액은 26.0억 달러로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2.9%임
  -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63.6%(12) → 73.8(13) → 82.9(14)
  - 수입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돼지고기, 침엽수제제품, 유장, 포도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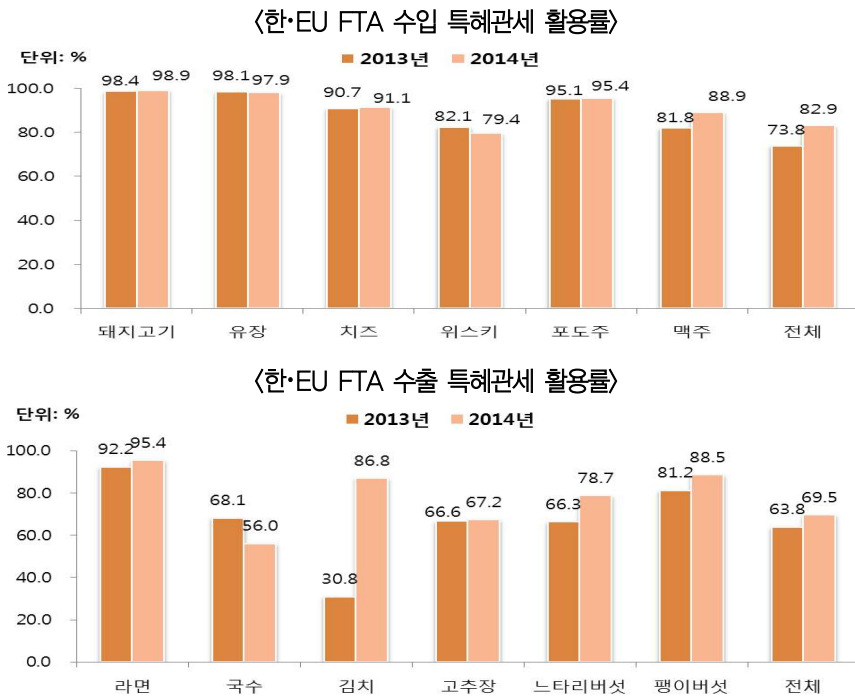
#### □ 대(對)EU 수출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5.7%p 상승

- 2014년 우리나라의 대(對)EU 수출 농축산물 중 ‘FTA 대상 품목’의 수출액은 3.1억 달러이며, 그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 수출액은 2.2억 달러로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69.5%임



-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58.5%(12) → 63.8(13) → 69.5(14)
- 수출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라면, 젤라틴, 커피조제품임

그림 3. 2014년 주요 농축산물 한·EU FTA 특혜관세 활용률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2014년 한·EU FTA  
수입과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각각 82.9%와 69.5%

”

## 2. 주요 품목별 수입 변화 및 수입가격 분석

### 2.1. 돼지고기

□ 이행 4년차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산 공급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행 3년차 대비 58.0% 증가

○ 국내 돼지 유행성설사병(PED), 구제역(FMD) 발생으로 도축두수가 감소함에 따라,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FMD 발생으로 급증했던 이행 1년차보다 12.7% 증가

- 도축두수: 1,439만 두('13.7.~'14.5.) → 1,396('14.7.~'15.5.)

- 돼지고기가격(탕박 기준): 4,458원/kg('14.1.~'14.6.) → 4,937('15.1.~'15.5.)

○ 돼지고기 총수입량 중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3.9%로 이행 3년차 대비 9.4%p 상승

- 반면, 미국산, 캐나다산과 칠레산 수입량 비중은 각각 28.6%, 9.7%와 5.7%로 동 기간 4.5%p, 2.2%p와 2.2%p 하락

○ 국내산 가공원료용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냉동돼지고기 수입량은 이행 3년차 대비 약 1.3배 증가

- 냉동돼지고기 수입 급증으로 전체 EU산 돼지고기 수입량 가운데 냉동돼지고기의 비중은 이행 3년차 대비 16.1%p 상승한 52.7%

“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이행 3년차  
대비 58.0% 증가  
”

표 3. EU산 돼지고기 수입량 동향

단위: 톤, %

구 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1.7.~12.6.)	2년차 (12.7.~13.6.)	3년차 (13.7.~14.6.) (B)	4년차 (14.7.~15.6.) (C)	발효 전 대비 (C/A)	3년차 대비 (C/B)
전 체	139,343 (40.8)	208,271 (43.4)	125,446 (36.5)	148,558 (44.5)	234,699 (53.9)	68.4	58.0
냉동돼지고기	53,893 (25.7)	84,242 (28.6)	53,344 (23.7)	54,308 (27.2)	123,747 (44.5)	129.6	127.9
냉동삼겹살	76,459 (79.3)	113,650 (87.0)	62,833 (79.5)	80,308 (86.7)	95,075 (88.6)	24.3	18.4
냉장삼겹살	54(0.4)	952(3.7)	108(0.7)	112(1.1)	244(2.0)	384.2	117.3

주 1)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 HS코드는 각각 0203299000, 0203291000, 0203191000임.

2) ( ) 안의 수치는 EU산이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입단가 상승으로 EU산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수입가격은 이행 3년차 대비 상승

- 냉동돼지고기와 냉동삼겹살 수입가격은 이행 3년차 대비 각각 23.2%와 3.1% 상승한 반면, 냉장삼겹살은 4.9% 하락
  - 이행 4년차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과 냉장삼겹살에 대한 협정관세율은 각각 8.3%, 15.9%와 14.3%이고, 각각 5년, 10년과 10년 동안 균등철폐될 예정

표 4. EU산 돼지고기 수입가격 동향

단위: 원/kg, %

구 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등락률(%)	
		1년차 (11.7.~12.6.)	2년차 (12.7.~13.6.)	3년차 (13.7.~14.6.) (B)	4년차 (14.7.~15.6.) (C)	발효 전 대비 (C/A)	3년차 대비 (C/B)
전 체	3,867	4,494	3,972	3,885	3,862	- 0.1	- 0.6
냉동돼지고기	2,629 (25.0)	2,800 (20.8)	2,398 (16.6)	2,394 (12.5)	2,950 (8.3)	12.2	23.2
냉동삼겹살	4,740 (25.0)	5,708 (22.7)	5,303 (20.4)	4,886 (18.1)	5,038 (15.9)	6.3	3.1
냉장삼겹살	6,738 (22.5)	9,448 (20.4)	7,189 (18.4)	7,589 (16.3)	7,215 (14.3)	7.1	- 4.9

주 1) 수입가격 산출식은 (수입액×(1+관세율)×환율)/수입량임.  
 2) ( ) 안의 수치는 연차별 협정관세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EU FTA 협정서.

“  
 이행 4년차  
 돼지고기 관세 하락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효과는  
 약 7~13%  
 ”

□ 한·EU FTA 이행 4년차 관세 하락으로 돼지고기의 수입가격이 약 7~13%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남

- 이행 4년차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발효 수입가격과 기준관세율을 적용한 미발효 수입가격을 비교하면, 가격 하락효과 추정 가능
  - 돼지고기 중 냉동돼지고기의 수입가격 인하율(△13.4%)이 가장 높고, 냉동삼겹살의 인하율(△6.7%)이 가장 낮음

표 5. EU산 돼지고기 관세 하락효과

단위: 원/kg, %

이행 4년차 가격 기준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
FTA 미발효(A)	3,405	5,433	7,732
FTA 발효(B)	2,950	5,038	7,215
관세하락효과(B/A)	-13.4	-7.3	-6.7

“  
EU산 유제품  
수입량은 이행 3년차  
대비 25.9% 증가  
”

## 2.2. 유제품

□ 이행 4년차 EU산 유제품 수입량은 FTA TRQ 확대, 관세 인하와 주요 수출국의 증산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과 국내 수요 증가로 3년차 대비 25.9% 증가

- EU산 유장, 치즈, 탈지분유, 조제분유 수입량은 이행 3년차 대비 모두 증가했으며, 그중 치즈의 증가율(122.6%)이 가장 큼
  - 치즈에 대한 TRQ 물량은 이행 3년차 대비 3.0%(4,696톤 → 4,837) 증가했고, 협정관세율은 2.2%p(29.2% → 27.0) 하락
  - EU산 치즈 생산량: 789.8만 톤('13.4.~'14.2.) → 792.2('14.4.~'15.2.)
  - 국내 치즈 소비량: 10.0만 톤('11) → 10.8('13) → 11.8('14)
- 유제품 총수입량 중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5.8%로 이행 3년차 대비 14.8%p 상승
  - 반면 미국산의 비중(44.1%)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은 각각 8.9%와 6.5%로 이행 3년차 대비 각각 14.5%p와 11.5%p 하락

표 6. EU산 유제품 수입량 동향

단위: 톤, %

구 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1.7.~'12.6.)	2년차 (12.7.~'13.6.)	3년차 (13.7.~'14.6.) (B)	4년차 (14.7.~'15.6.) (C)	발효 전 대비 (C/A)	3년차 대비 (B/A)
전 체	38,701 (25.2)	79,324 (35.6)	58,006 (28.8)	64,692 (31.0)	81,465 (35.8)	110.5	25.9
유 장	24,348 (38.2)	28,340 (49.3)	26,471 (43.6)	33,002 (55.2)	35,219 (60.1)	44.7	6.7
식용	5,686	9,823	9,496	9,919	7,897	38.9	-20.4
치 즈	5,183 (10.3)	10,998 (14.9)	12,323 (14.5)	10,625 (12.1)	23,646 (22.2)	356.3	122.6
탈지분유	1,140 (9.0)	23,547 (68.2)	5,622 (35.1)	7,907 (37.0)	8,735 (42.6)	666.1	10.5
전지분유	135 (16.4)	1,235 (28.3)	267 (15.9)	320 (15.2)	78 (4.3)	-42.1	-75.6
조제분유	93 (8.2)	428 (15.4)	787 (28.5)	1,048 (33.7)	1,429 (42.7)	1,435.5	36.4

주 1) 이행 4년차 유장,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 조제분유의 TRQ 물량은 각각 3,554톤, 4,837톤, 1,060톤, 1,060톤, 477톤이고, 유장의 경우 식용유장에 대한 TRQ 물량임.

2) ( ) 안의 수치는 EU산이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EU산 유제품 중 유장, 치즈, 탈지분유, 조제분유의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이행 3년차 대비 모두 상승한 반면, 전지분유는 하락
  - 유장(60.1%), 치즈(22.2%), 탈지분유(42.6%), 조제분유(42.7%)의 점유율 상승폭은 각각 4.9%p, 10.1%p, 5.6%p, 9.0%p이고, 전지분유의 점유율 하락폭은 10.9%p임

□ FTA TRQ 확대, 관세 인하와 수입단가 하락으로 모차렐라 치즈, 가공 치즈, 하우다(Gouda) 치즈의 수입가격이 이행 3년차 대비 모두 하락

- 이행 4년차 하우다 치즈의 수입가격 하락률(△9.3%)은 모차렐라 치즈와 가공 치즈보다 높고,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하락률은 상대적으로 낮음
  - EU산 치즈의 기준관세율(36%)은 10년 혹은 15년 동안 균등철폐되고, TRQ 물량(4,560톤)은 연차별로 3%씩 증량

표 7. EU산 치즈 수입가격 동향

단위: 원/kg, %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등락률(%)	
		1년차 (11.7.~12.6.)	2년차 (12.7.~13.6.)	3년차 (13.7.~14.6.) (B)	4년차 (14.7.~15.6.) (C)	발효 전 대비 (C/A)	3년차 대비 (C/B)
전체	10,054	8,570	8,368	9,289	7,198	-28.4	-22.5
모차렐라	6,853 (36.0)	5,714 (33.7)	5,478 (31.5)	5,763 (29.2)	5,630 (27.0)	-17.8	-2.3
가공	16,156 (36.0)	12,683 (33.7)	12,455 (31.5)	11,193 (29.2)	11,178 (27.0)	-30.8	-0.1
하우다	5,393 (36.0)	5,416 (33.7)	4,651 (31.5)	5,522 (29.2)	5,010 (27.0)	-7.1	-9.3

주 1) 모차렐라 치즈, 가공 치즈, 하우다 치즈 HS코드는 각각 0406101010, 0406300000, 040690200임.  
 2) 수입가격 산출식은 (수입액×(1+관세율)×환율)/수입량이고, 유제품 전체 수입가격은 커드(Curd)를 제외한 가격임.  
 3) 각 품목의 TRQ 수입물량을 모두 소진했다는 가정하에 수입가격을 산출함.  
 4) ( ) 안의 수치는 연차별 협정관세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EU FTA 협정서

“

이행 4년차 유제품 관세 하락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효과는 약 8~64%

”

“

EU산 곡물 수입량은  
이행 3년차 대비  
33.9% 감소

”

- 한·EU FTA 이행 4년차 관세 하락으로 유제품(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 조제분유)의 수입가격이 약 8~64%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남
- 유제품 중 전지분유의 수입가격 인하율(△63.8%)이 가장 높고, 탈지분유의 인하율(△7.7%)이 가장 낮음

표 8. EU산 주요 유제품 관세 하락효과

단위: 원/kg, %

이행 4년차 가격 기준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	조제분유
	모차렐라	가공	하우다			
FTA 미발효(A)	6,458	15,203	6,813	10,886	4,726	42,017
FTA 발효(B)	5,630	11,178	5,010	10,043	1,712	34,749
관세하락효과(B/A)	-12.8	-26.5	-26.5	-7.7	-63.8	-17.3

### 2.3. 곡물

- 이행 4년차 EU산 곡물 수입량은 수입선 전환 등으로 3년차 대비 33.9% 감소
- EU산 옥수수과 밀의 수입량은 수입선이 미국 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소했고, 보리는 국내 주류업체의 원료 수요 확대에 증가
  - EU산 옥수수, 밀과 보리 수입량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모두 크게 증가했고, 특히 최근 밀과 보리 수입량이 급증하여 수입 전환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
- 곡물 총수입량 중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이행 3년차 대비 3.1%p 하락
  - 반면, 작황호조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미국산 수입량 비중(41.3%)은 동 기간 14.0%p 상승했으며, 미국산 곡물 가운데서도 옥수수와 밀의 비중은 각각 20.1%p와 3.3%p 상승

표 9. EU산 주요 곡물 수입량 동향

단위: 톤, %

구 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1.7.~12.6.)	2년차 (12.7.~13.6.)	3년차 (13.7.~14.6.) (B)	4년차 (14.7.~15.6.) (C)	발효 전 대비 (C/A)	3년차 대비 (C/B)
전 체	180,754 (1.5)	337,298 (2.5)	634,670 (4.4)	1,291,033 (8.8)	853,110 (5.7)	372.0	-33.9
옥수수	170,949 (2.1)	319,888 (4.2)	618,838 (7.4)	408,592 (4.2)	302,039 (2.5)	76.7	-26.1
보리	1,659 (0.8)	15,900 (6.1)	14,083 (4.9)	17,164 (5.9)	39,069 (12.5)	2255.0	127.6
밀	7,578 (0.2)	1,269 (0.03)	1,456 (0.03)	864,995 (20.8)	511,767 (14.6)	6653.3	-40.8

주: ( ) 안의 수치는 EU산이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이행 4년차 수입가격이 하락한 기타옥수수와 밀가루 수입량은 감소했고, 수입가격이 급등(25.8%)한 보리(복지 않은 맥아) 수입량은 크게 증가

- FTA 발효 후 기타옥수수 수입가격은 하락세를 보였고, 옥수수 가루와 복지 않은 맥아는 무관세 적용 혹은 관세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임
  - 이행 4년차 밀가루에 적용된 기준관세율(4.2%)은 완전 철폐됨

“  
이행 4년차  
주요 곡물 관세 하락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효과는  
약 4~35%

표 10. EU산 주요 곡물 수입가격 동향

단위: 원/kg, %

구 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등락률(%)	
		1년차 (11.7.~12.6.)	2년차 (12.7.~13.6.)	3년차 (13.7.~14.6.) (B)	4년차 (14.7.~15.6.) (C)	발효 전 대비 (E/A)	3년차 대비 (E/D)
옥수수	기타 옥수수 (328.0)	1,126 (304.5)	1,588 (281.1)	1,206 (257.7)	997 (234.2)	-11.5	-17.3
	옥수수 가루 (5.0)	665 (0.0)	741 (0.0)	720 (0.0)	746 (0.0)	25.7	12.1
	보리 복지 않은 맥아 (513.0)	2,911 (480.8)	1,028 (448.8)	1,074 (416.8)	1,138 (384.7)	-50.8	25.8
밀	밀가루 (4.2)	650 (3.1)	1,115 (2.1)	997 (1.0)	1,030 (0.0)	46.3	-7.7

주 1) 기타옥수수, 옥수수가루 HS코드는 각각 1005909000, 1102200000이고, 복지 않은 맥아는 1107100000이고, 밀가루는 1101001000임.  
2) 수입가격 산출식은 (수입액 × (1+관세율) × 환율) / 수입량임.  
3) ( ) 안의 수치는 연차별 협정관세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EU FTA 협정서.

“

EU산 맥주, 위스키,  
포도주 수입량은 이행  
3년차 대비 각각  
20.2%, 9.2%, 4.9%  
증가

”

- 한·EU FTA 이행 4년차 관세 하락으로 주요 곡물(옥수수, 보리, 밀)의 수입가격이 약 4~35%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남
- 곡물 중 보리(볶지 않은 맥아)의 수입가격 인하율(△35.1%)이 가장 높고, 밀가루의 인하율(△4.0%)이 가장 낮음

표 11. EU산 주요 곡물 관세 하락효과

단위: 원/kg, %

이행 4년차 가격 기준	옥수수		보리	밀
	기타 옥수수	옥수수 가루	볶지 않은 맥아	밀가루
FTA 미발효(A)	1,277	877	2,206	991
FTA 발효(B)	997	836	1,432	951
관세하락효과(B/A)	-21.9	-4.7	-35.1	-4.0

## 2.4. 주류

- 이행 4년차 EU산 맥주, 위스키, 포도주 수입량은 관세 인하<sup>2)</sup>와 국내 수요 증가로 3년차 대비 증가
  - 수입맥주의 소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EU산 맥주 수입량은 이행 3년차 대비 20.2% 증가했으나, 맥주 총수입량 중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p 하락
    - EU산 맥주 수입량 비중: 48.1%(3년차) → 46.2%(4년차)
  - EU산 위스키 수입량은 FTA 발효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이행 4년차에 3년차 대비 9.2% 증가했고,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도 1.1%p 상승
    - EU산 위스키 수입량 비중: 94.6%(3년차) → 95.7%(4년차)
  - EU산 포도주의 수입량은 3년차 대비 4.9% 증가했으나, 포도주 총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p 하락
    - EU산 포도주 수입량 비중: 53.0%(3년차) → 43.1%(4년차)

2) 이행 4년차 EU산 맥주의 협정관세율은 15.0%로 3년차 대비 3.7%p 하락, 위스키(스카치)의 기준관세율(20%)은 완전 철폐, 포도주의 기준관세율(15%)은 FTA 발효 즉시 완전 철폐, 보드카의 협정관세율은 6.6%로 3년차 대비 3.4%p 하락.



- EU산 보드카 수입량은 FTA 발효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행 4년차에 3년차 대비 12.6% 감소했으나,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비슷한 수준 유지
  - EU산 보드카 수입량 비중: 77.0%(3년차) → 75.5%(4년차)

표 12. EU산 주요 주류 수입량 동향

단위: 톤, %

구 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1.7.~12.6.)	2년차 (12.7.~13.6.)	3년차 (13.7.~14.6.) (B)	4년차 (14.7.~15.6.) (C)	발효 전 대비 (C/A)	3년차 대비 (C/B)
맥주	16,821 (39.7)	27,496 (41.7)	35,459 (41.7)	51,624 (48.1)	62,049 (46.2)	268.9	20.2
위스키	20,732 (95.2)	19,890 (95.3)	18,405 (93.9)	17,137 (94.6)	18,713 (95.7)	-9.7	9.2
포도주	13,364 (52.8)	14,758 (55.9)	17,298 (54.7)	16,959 (53.0)	17,787 (43.1)	33.1	4.9
보드카	596 (75.1)	1,072 (75.7)	1,852 (77.3)	2,060 (77.0)	1,801 (75.5)	202.2	-12.6

주: ( ) 안의 수치는 EU산이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한·EU FTA 이행 4년차 관세 하락으로 주류(맥주, 위스키, 포도주, 보드카)의 수입가격이 약 11~17%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남

- 주류 중 위스키의 수입가격 인하율(△16.7%)이 가장 높고, 보드카의 인하율(△11.2%)이 가장 낮음

표 13. EU산 주류 관세 하락효과

단위: 원/ℓ, %

이행 4년차 가격 기준	맥주	위스키	포도주	보드카
FTA 미발효(A)	1,211	13,112	7,242	5,590
FTA 발효(B)	1,071	10,926	6,297	4,965
관세하락효과(B/A)	-11.6	-16.7	-13.0	-11.2

“

이행 4년차  
주류 관세 하락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효과는  
약 11~17%

”

## 2.5. 기타

### □ 이행 4년차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이 낮은 EU산 신선과일(오렌지)과 점유율이 높은 올리브유, 초콜릿의 수입량은 3년차 대비 증가

- EU에서는 주로 과일 가공품이 수입되며, 오렌지와 키위 등의 신선 과일은 소량 수입
  - 이행 4년차 EU산 신선과일 수입량은 2,539톤으로 3년차 대비 37.0% 증가
  - 그중, 오렌지 수입량(2,080톤)은 82.3% 증가한 반면, 키위 수입량(455톤)은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35.7% 감소
- 이행 4년차 국내 수요 증가에 따른 EU산 올리브유<sup>3)</sup> 수입량 증가로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이 더욱 높아짐
  - 올리브유 수입량은 이행 3년차 대비 29.8% 증가했고, 시장점유율은 98.2%로 동기 대비 2.7%p 상승
- 관세 인하 및 수입 전환효과에 따른 EU산 초콜릿<sup>4)</sup> 수입량 증가로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이 확대됨
  - 초콜릿 수입량은 이행 3년차 대비 12.5% 증가했고, 시장점유율은 38.5%로 동기 대비 2.3%p 상승
  - 반면,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18.9%로 이행 3년차 대비 10.2%p 하락

“  
이행 4년차  
신선과일, 올리브유,  
초콜릿 관세 하락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효과는  
10% 이하  
”

표 14. EU산 기타 품목 수입량 동향

단위: 톤, %

구 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1.7.~12.6.)	2년차 (12.7.~13.6.)	3년차 (13.7.~14.6.) (B)	4년차 (14.7.~15.6.) (C)	발효 전 대비 (C/A)	3년차 대비 (C/B)
오렌지	339 (0.3)	230 (0.1)	217 (0.1)	1,141 (1.1)	2,080 (1.9)	513.6	82.3
키 위	-	-	436 (1.9)	708 (3.5)	455 (2.2)	-	-35.7
올리브유	11,741 (95.8)	11,004 (94.2)	10,952 (95.5)	13,595 (95.5)	17,649 (98.2)	50.3	29.8
초콜릿	4,604 (24.2)	8,077 (30.0)	9,541 (34.7)	10,852 (36.2)	12,211 (38.5)	165.2	12.5

주: ( ) 안의 수치는 EU산이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3) 올리브유의 기준관세율(8%)은 FTA 발효 즉시 철폐됨.
- 4) 이행 4년차 초콜릿의 협정관세율은 2.6%로 3년차 대비 1.4%p 하락.

- 한·EU FTA 이행 4년차 관세 하락에 따른 신선과일(오렌지, 키위), 올리브유, 초콜릿의 수입가격 인하효과는 10% 이하로 나타남
  - 관세 하락에도 불구하고 EU산 올리브유와 초콜릿의 기준관세율(8%) 하락폭이 크지 않아 수입가격 인하효과가 제한적임

표 15. EU산 기타 품목 관세 하락효과

단위: 원/kg, %

2014년 수입가격	신선과일		올리브유	초콜릿
	오렌지	키위		
FTA 미발효(A)	1,670	3,898	4,175	9,908
FTA 발효(B)	1,507	3,594	3,967	9,413
관세하락효과(B/A)	-9.8	-7.8	-5.0	-5.0

“  
 이행 4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은  
 수입 전환효과,  
 국내 수급여건에  
 좌우되는 경향  
 ”

### 3. 시사점

#### □ 한·EU FTA 이행 4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 증가추세 속에서 수입 전환효과 부각됨

- EU산 돼지고기, 유제품, 올리브유, 초콜릿 등의 수입량이 이행 3년차 대비 증가하였으며, 각 품목의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도 상승함
  - 돼지고기, 유제품, 올리브유, 초콜릿의 수입량은 이행 3년차 대비 각각 58.0%, 25.9%, 29.8%, 12.5% 증가했고, 동 기간 각 품목의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각각 9.4%p, 14.8%p, 2.7%p, 2.3%p 상승

- 이행 3년차 미국의 작황부진으로 EU산 곡물 수입이 급증했으나, 이행 4년차 들어 미국의 작황호조로 수입선이 전환됨으로써 EU산 농축산물 수입 증가세에 영향을 미침

- 미국 옥수수 생산량: 273백만 톤('12/'13) → 351('13/'14) → 361('14/'15)
-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 268만 톤('13.7.~'14.6.) → 438('14.7.~'15.5.)

- 이행 4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한 가운데, 대(對)EU 농축산물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

- 대(對)EU 농축산물 수출액은 커피조제품, 기타음료, 라면 등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이행 3년차 대비 15.7% 증가
- 대(對)EU 수출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제고되었으며, 이는 EU로 수출되는 'FTA 대상 품목' 중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리는 국내산 농축산물의 비중이 높아짐을 의미함

#### □ FTA 이행 초기로 관세 인하 등의 FTA 효과보다 국내 수급여건에 더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나타남

- 특히, 상시화되어가는 가축질병으로 인한 국내산 공급량 부족으로 축산물 수입량 크게 증가

- 이행 4년차 국내 돼지 유행성설사병(PED), 구제역(FMD) 발생 여파에 따른 도축두수 감소로 EU산 돼지고기 수입 급증

- 또한, 국내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 혹은 선호도 상승으로 가공식품의 수입량 증가추세가 이어짐
  - EU산 치즈, 맥주, 포도주, 올리브유, 초콜릿 등의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향후 관세 인하폭이 확대될 것이며,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더욱 가시화될 전망**

- EU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제고되었으며, 이는 EU로부터 수입되는 ‘FTA 대상 품목’ 중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리는 품목의 비중이 높아짐을 의미함
  -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63.6%(’12) → 73.8%(’13) → 82.9%(’14)
- 관세 하락폭 확대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효과가 커지면서 EU산 농축산물 가격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이행 4년차 관세 하락에 따른 EU산 돼지고기, 유제품, 곡물(옥수수, 보리, 밀), 주류의 수입가격 인하효과는 각각 7~13%, 8~64%, 4~35%, 11~17%인 것으로 추정됨

**□ 한·EU FTA 이행에 따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보완대책을 내실화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하여 농산업을 발전시킬 필요**

- 한·EU FTA 이행으로 국내 축산업(양돈, 낙농)의 위축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에서, 축산업 관련 국내보완대책을 보다 내실화하는 동시에 상시화되어가는 가축질병의 예방 및 대응책 마련 시급
- EU산을 포함한 수입농식품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품종과 국산 원료 가공식품 개발·보급을 통한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 필요

“

관세 인하폭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가 가시화될 전망

”



2015년

- 제106호 한·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 제105호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정은미)
- 제104호 할랄 농식품의 한·일 대응 실태와 과제(박기환)
- 제103호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현)
- 제102호 한·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 제101호 2015년 주요 농정이슈(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2014년

- 제100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99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 제98호 한·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 제97호 발농업의 쟁점과 발전방향(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 제96호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어명근, 이병훈)
- 제95호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박성재)
- 제94호 지역 간 연계협력 현황을 통해서 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과제(송미령, 권인혜)
- 제93호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 제92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 제90호 농어촌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박준기, 김미복)
- 제89호 한·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 제88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 정책 과제(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 제86호 한·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 제85호 한·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제84호 AI 발생 및 대응 상황과 방역정책 추진 방향(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2013년

- 제82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정정길)
- 제80호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 현황과 주요 과제(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 제79호 산지축산의 유럽 사례 및 시사점(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 제78호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 제77호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 제76호 해외조림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 제75호 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박동규, 승준호)
- 제74호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석현덕, 박소희)
- 제73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송주호)
- 제72호 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제71호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석현덕, 안선진)
- 제70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3년 추석 가격 전망(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 제68호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정호근, 석현덕)
- 제67호 2013년 7월 북한의 수해 상황과 경제적 피해(권태진, 임수경)
-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박시현)
- 제65호 유기농업의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로드맵(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64호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군별 농업경쟁력 평가(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63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석현덕, 안선진)
- 제62호 한·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박준기)
- 제59호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성명환, 윤재웅)
-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정원호, 최경환)
- 제56호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송미령)
- 제55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54호 산불 관리의 현황과 개선 과제(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 제53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 제52호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김성우, 노호영)
- 제51호 한·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정민국, 문한필)
-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박기환)
- 제49호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김연중, 한혜성)
- 제48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지인배, 허덕, 송우진, 우병준)
- 제47호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김용렬, 박시현)
- 제46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박현태, 박기환)
- 제45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정민국)
- 제44호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강창용)
-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강창용)
-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이계임, 이동소)
-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박준기)

---

**KREI 농정보커스 제106호**

한·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5. 6. 30.  
발 행 2015. 6. 30.  
발 행 인 최세균  
편집위원 김홍상, 김병률, 박준기, 성주인, 우병준, 문한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02-2269-5523~4 dec5523@hanmail.net

---

ISBN: 978-89-6013-746-2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